

[4강 개화기~1920년대 한국문학]

1. 개화기 시대의 시가 문학

(1) 개화가사

갑오경장부터 1910년까지 개화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 가사

(2) 신체시

갑오개혁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시의 형태로, 전통시와 근대시를 잇는 과도기적 시가문학으로 형식적인 면에서 이전의 작품들과 큰 차이가 있다.

* 주요작품 :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 해에게서 소년에게 : 구한말 때의 과도기적 문학들이 그렇듯 신문물을 찬양하고 국민 계몽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작품 일부
쳐.....르썩, 쳐.....르썩, 척, 씌.....아.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태산 같은 높은 뒀.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까지 하면서 따린다, 부순다, 무너 바린다. 쳐.....르썩, 쳐.....르썩, 척, 튜르릉, 콕. 쳐.....르썩, 쳐.....르썩, 척, 씌.....아. 내게는, 아모 것도,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아모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모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는 쳐.....르썩, 쳐.....르썩, 척, 튜르릉, 콕.

2. 개화기 시대의 산문 문학

(1) 소설

개화기 소설 중 새로운 시대의 이념이나 사상을 다룬 작품으로, 이인식을 비롯한 개화파 지식인들이 이전의 고대소설과는 다른 새로운 소설 형태를 창출하였던 바, 신소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들의 작품을 지칭한다.

* 주요작품 : 이인식의 '혈의 누', '은세계'/이해조의 '자유종' 등.

◎ **혈의 누** : 이 소설 이전에도 여러 가지 신소설이 있었으나 《혈의 누》가 문학적인 수준이나 가치로 보아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신소설로 평가된다. 개화기 시대 현실의 반영을 통해서 자주 독립·신교육·신결혼관 등의 주제 의식을 보이고 있다.

작품 일부
일본 대판 정상 군의 집에 있을 때 지내던 일을 말할지라도 학교에 가면 공부에만 정신이 쓰이고 집에 돌아오면 정상 부인에게 정도 들었고 조심도 극진히 하였고 동무를 대하면 재미있게 놀아도 보았는데 그럭저럭 부모 생각도 다 잊었으니, 미국에 온 지 사오 년 만에 천만의외에 그 부친을 만나보고 그 어머니 생존한 줄을 알았는데 하루바삐 그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으나 일변으로 생각하면 그 어머니가 살아 있는 것만 기뻐하여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던 옥련이가 그 어머니를 만나보고 작별하더니 얼굴에 근심 빛뿐이라.
귀에는 어머니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눈에는 어머니 모양이 보이는 듯하다. 평양성 난 리 후에 그 어머니가 고생한 이야기 하던 것과 화성돈 정거장에서 그 어머니 떠나던 일은 옥련의 마음속에 사진같이 다 박혀 있다. 옥련이가 지향없이 혼자말로, "우리 어머니는 어디쯤이나 가셨누. 아버지도 여기에 계시고 나도 여기 있는데 어머니 혼자 우리나라로 가시는구나. 내 몸 둘이 되었으면 하나는 아버지 되시고 있고 하나는 어머니 되시고 있고지고. 우리 어머니가 평양성 중에서 십 년 동안을 근심 중으로 지내 시고 또 혼자 평양으로 가시는구나. 나를 생각하시느라고 병환이나 아니 날까."
작품 줄거리
청일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평양에서 일곱 살 난 옥련은 부모를 잃고 헤매다가 부상을 당한다. 그 뒤 일본인 군의관 이노우에에게 구출되고 일본에 있는 그의 부인에게 보내져 학교도 다닌다. 그러나 이노우에가 전사하자 개가를 꿈꾸는 부인은 옥련을 구박한다. 집을 나와 방황하던 옥련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유학을 가려던 구완서라는 청년을 만나 함께 미국으로 간다.
한편 모란봉 근처에서 남편과 딸을 잃고 헤매다가 실의에 빠진 옥련 어머니는 대동강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했으나 구출되고, 아버지는 구국을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 옥련은 미국에서 고등소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자신의 기사를 본 아버지와 만난 뒤 구완서와 약혼한다. 평양의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로부터 편지를 받고 기뻐한다.

◎ **자유종** : 이해조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정치소설이다. '토론소설'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으며, 소설의 처음과 끝 부분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작품 일부
이전 같으면 오늘 이러한 잔치에 취하고 배부르면 무슨 걱정 있으리까마는,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며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오? 내 말이 연설 체격과 흡사하나 우리 규

중 여자도 결코 모를 일이 아니올시다.

일본도 삼십 년 전 형편이 우리나라보다 우심하여 혹 천하대세라 혹 자국전도라 말하는 자는, 미친 자라 괴악한 사람이라 지목하고 인류로 치지 않더니, 점점 연설이 크게 열리매 전도하는 교인같이 거리거리 떠드나니 국가 형편이요, 부르나니 민족사세라, 이삼인 못거지라도 술잔을 대하기 전에 소회를 말하고 마시니, 전국 남녀들이 십여 년을 한담도 끊고 잡담도 끊고 언필칭 국가라 민족이라 하더니, 지금 동양에 제일 제이 되는 일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어떠한 비참지경이오? 세월은 물같이 흘러가고 풍조는 날로 닥치는데, 우리 비록 아홉 폭 치마는 둘렀으나 오늘만도 더 못한 지경을 또 당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눈결에 될지라.

작품 줄거리

융희 2년 음력 정월 보름 이매경이란 가정부인의 생일잔치에 신설헌, 홍국란, 강금운 부인이 초대를 받는다. 이 부인들은 여권, 국가, 학문, 종교 등 나라의 여러 정세에 대하여 토론을 벌인다. 한 부인이 "우리 대한의 정계가 부패함도 학문 없는 연고요, 민족의 부패함도 학문 없는 연고요, 우리 여자도 학문 없는 연고로 기천 년 금수 대우를 받았으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급한 것은 학문이요."라고 하면서 옛 교육을 벗어나 신교육을 받아들이자는 신학문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이 부인들은 여권 신장의 한 개로 여자의 신교육을 강조한다.

또 한 부인은 "우리나라 지식을 부흥케 하려면 그 소위 무슨 변에 무슨 자, 무슨 아래 무슨 자 하는 옛날 상전으로 알던 중국 글을 폐지하여야 하겠소."라고 하면서 한문 폐지와 한글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비록 종의 자식이나 양반의 자식이라도 우리나라 공물은 일반이여늘 소위 양반이니, 중인이니, 상놈이니, 서울이니, 시골이니 하여 서로 보기를 타국 사람같이 하니 단체가 성립할 날이 어찌 있겠소?" 하면서 계급 타파를 주장하고, 평등사상과 민주 정신을 강조하는 등 당시 개화에 필요한 제반 새로운 제도와 정신에 대해 토론한다.

3. 1920년대 시가 문학

(1) 시

* 주요작품 : 주요한 '불놀이', 동인지 '백조', '폐허', '창조'등, / 김소월 '진달래꽃' / 한용운 '님의 침묵'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

◎ 불놀이 : 실연한 한 청년을 시적 자아로 해서 가신 임을 그리워하며 회한에 젖는 불안과 감상적 울분을 강렬한 어조로 표출하한 작품이다. 신체시의 계몽성이나 목적성을 배제하고 시 자체의 미감과 예술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 시사에서 최초의 서정시라고 일컬어진다.

작품 일부

아아 날이 저문다, 서편 하늘에, 외로운 강물 위에, 스러져 가는 분홍빛 놀..... 아아 해가

저물면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 우는 밤이 또 오건마는, 오늘은 사월이라 파일날 큰 길을 물밀어가는 사람 소리 듣기만 하여도 흥성스러운 것을, 왜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없는고?

아아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시뻘건 불덩이가 춤을 춘다. 잠잠한 성문 위에서 내려다보니, 물냄새 모래 냄새, 밤을 깨물고 하늘을 깨무는 햇불이 그래도 무엇이 부족하여 제 몸까지 물고 뜯을 때, 혼자서 어두운 가슴 품은 젊은 사람은 과거의 퍼런 꿈을 찬 강물 우에 내어 던지나, 무정한 물결이 그 그림자를 멈출 리가 있으랴? --- 아아 꺾어서 시들지 않는 꽃도 없건마는 가신 님 생각에 살아도 죽은 이 마음이야 에라 모르겠다, 저 불길로 이 가슴 태워버릴까, 이 설음 살라버릴까, 어제도 아픈 발 끌면서 무덤에 가 보았더니 겨울에는 말랐던 꽃이 어느덧 피었더라마는 사랑의 봄은 또다시 안 돌아오는가, 차라리 속 시원히 오늘 밤 이 물속에 그러면 행여나 불상히 여겨 줄이나 있을까 할 적에 통, 탕, 불티를 날리면서 튀어나는 매화포, 펄떡 정신을 차리니 우구구 떠드는 구경꾼의 소리가 저를 비웃는 듯, 꾸짖는 듯. 아아 좀더 강렬한 정열에 살고 싶다. 저기 저 햇불처럼 영키는 연기, 숨막히는 불꽃의 고통 속에서라도 더욱 뜨거운 삶을 살고 싶다고 뜻밖에 가슴 두근거리는 것은 나의 마음.....

◎ 님의 침묵 : 조국이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지만, 시인 자신은 조선을 독립된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시이다.

작품 일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 갔습니다.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2) 카프(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orea Artista Proletaria Federatio)'의 약칭. 이 동맹은 1925년에 결성되었다. 카프는 예술을 무기로 하여 조선민족의 계급적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령(綱領)을 채택하고 박영희를 회장으로 뽑아 대규모의 문학운동을 벌여 나갔다. 프로 문학 운동의 초기, 카프는 민족주의적 문학, 즉 그들 쪽에서 볼 때 부르조아 문학과 격렬한 논쟁을 벌임으로써, 양대 이데올로기가 대립한 문학의 논쟁시대를 연출(演出)하였다. 이 집단의 활동은 1920년대에 대두하기 시작한 무산계급 및 사회운동 등이 일어난 시대적 이점(利點)을 갖고 있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만한 문학운동으로서의 업적이나 작품을 남기지 못한 채, 이론과 논쟁으로만 일관하다가 일제(日帝)의 탄압에 굴복했다.

이들이 창작한 소설은 정치적인 목적이 강해서 문학이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고취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고자 했다. 그런 까닭에 소설의 내용은 노동자 파업이나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주를 이뤘다. 카프에는 소속되지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작품을 써 내려간 작가도 있었다.

4. 1920년대 산문 문학

(1) 소설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의 상태에 직면함으로써, 자각과 계몽의 정신적 진보와는 별개로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 시대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가난에 대한 인식이 묘사된다는 점이다.

* 주요작품 : 현진건 '빈처', '술 권하는 사회', '운수좋은 날'/김동인 '배따라기', '감자', '광염소나타'/ 나도향 '병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뽕' 등

◎ 빈처 : 가난한 무명작가와 아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지식인 부부의 정신생활을 다룬 자전적 요소가 짙은 사실주의적 경향의 작품이며, 현진건의 자전적인 단편소설이다.

작품 일부
나는 마지못하여 하는 듯이 부시시 일어났다. 머리가 오히려 아프며 목이 몹시 말라서 국과 물을 연해 들이켰다. "물만 잡수셔서 어째요. 진지를 좀 잡수셔야지." 아내는 이런 근심을 하며 밥상머리에 앉아서 고기도 뜯어 주고 생선 뼈도 추려 주었다. 이것은 다 오늘 처가에서 가져온 것이다. 나는 맛나게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 내 밥상이 나매 아내가 밥을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껏 내 잠 깨기를 기다리고 밥을 먹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오늘 처가에서 본 일을 생각하였다. 어제 일이 있은 후로 우리 사이에 무슨 벽이 생긴 듯하던 것이 그 벽이 점점 얇어져 가는 듯하며 가엾고 사랑스러운 생각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장인 생신 잔치로부터 처형 눈 위에 멎는 것에 옮겨 갔다. 처형의 남편이 이번 그 돈을 딴 뒤로는 주야 요리점과 기생집에 돌아다니더니 일전에 어떤 기생을 얻어 가지고 미쳐 날뛰며 집에만 들면 집안사람을 들볶고 걸핏하면 처형을 친다 한다. 이번에도 별로 대단치 않은 일에 처형에게 밥상으로 냅다 갈겨 바로 눈 위에 그렇게 멎이 들었다 한다. "그것 보아 돈푼이나 있으면 다 그런 것이야." "정말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의종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야요." 아내는 충심(衷心)으로 공명(共鳴)해 주었다.
작품 줄거리
지식을 구한답시고 중국, 일본을 방랑하다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무명작가와 그의 아내가 있다. 아내는 점점 가난을 원망하게 되었고, 작가는 예술가의 처가 될 자격이 없다며 화를 내었다. 하지만 문득 아내가 가여워 출세해 호강을 시켜주고 싶다 했더니, 꼭 그렇게 될 거라며 반색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눈시울을 붉힌다.

◎ 배따라기 : 김동인(金東仁)이 지은 단편소설. 1921년 6월 <<창조 創造>> 제9호에 발표되었다.

작품 일부

“아우, 자넨 그렇게 새벽같이 통일이 올 거라고 믿는다 이 말이군.”

“다른 사람은 관두고라도 형님하고 저하고 매, 맏힌 구천의 한만 합치더라도 하늘이 필경 그 원을 드, 들어 줄 겁니다. 새벽이 그렇게 오듯이.....”

술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 사이에 섞일까 어쩔까 하다가 병국은 무거운 발걸음을 되돌리고 말했다. 저들의 맏힌 한에 그 자신의 말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바다와 하늘은 이제 잔광마저 어둠에 묻혀 지워져 버렸고 저 멀리 장진포 쪽의 등대만이 뻗하게 불을 켜고 있었다. 그런데 병국의 눈앞에 홀연히 한 마리의 도요새가 날아올랐다. 도요새의 유연한 비상은 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 나는 날개치기의 비행이 아니었다. 날개를 펼친 채로 기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나는 듯 역할의 비행이었다. 맞바람의 상승 기류를 타고 동그라미를 그리며 공중 높이 올라갔다가 바람을 옆으로 받아 활공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섬세한 울동이 눈앞에 잡힐듯 떠올랐다. 도요새야, 너는 동진강 하구를 떠나 어디에다 새로운 도래지를 개척했느냐? 병국이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도요새를 따라갔다. 그러자 도요새의 비행은 그의 눈앞에서 곧 사라지고 말았다. 병국은 종점 쪽으로 걸음을 빨리했다.

작품 줄거리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모란봉(牡丹峰)에 올라 봄경치를 즐기다가 문득 어디선가 들려오는 영유 배따라기 소리를 듣는다. 이윽고 그 소리의 주인공을 만나 그 사연을 듣게 된다. 그는 영유 사람으로 아우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장가를 들었는데, 부부의 금실도 좋았고 형수와 시동생의 사이도 원만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는 아내와 동생 사이를 의심하게 되어 자주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어느 날 장에 가서 아내에게 줄 거울을 사 가지고 돌아온 그는 아내와 동생이 방 안에 든 쥐를 잡느라고 옷매무새를 흐트린 것을 보고는 결정적으로 오해하여 아내를 내쫓고 만다. 며칠 뒤 아내는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동생은 영유를 떠난다. 그 후 형은 동생의 종적을 찾아 20년 동안이나 배따라기 노래를 불러가며 정처 없이 헤맨다는 것이다.

[5강 1930~1950년대 한국문학]

1. 1930~1940년대 시가 문학

일제 식민지 기간이라는 역사적 시련의 시기였지만 그와 같은 시대적 고통과, 자본주의적 질서가 전면화 되었다. 시에 있어서 모더니즘은 김기림이나 정지용, 김광균 등의 시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 주요 작품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상 '오감도', 김광균 '와사등', 정지용 '유리창', 유치환 '깃발', 서정주 '국화 옆에서', 이육사 '광야', 윤동주 '별 헤는 밤'

◎ 정지용 '유리창' : 정지용이 27세 때 자식을 잃고 그 비통한 심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감정을 엄격히 절제하면서 심상을 통해 선명한 영상을 떠올리게 하는 정지용의 초기 모더니즘 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닦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이육사 '광야' : 일제하의 절망적 현실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염원하는 의지와 시 정신을 기조로 시적 기교의 극치를 보인 작품이다.

작품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꿈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김광균 '와사등' : 현대 물질문명의 무질서에 대한 고민을 그린 것으로 주지주의적 서정시의 흐름을 형성한 작품이다. 방향을 잃은 현대인의 고독한 모습과 도시적 삶에서 느끼는 비애감,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잃은 현대인의 상실감이 두드러진다.

작품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간-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夜景)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생명파

정지용, 김영랑 등의 시문학파가 가지는 기교, 감각주의적인 경향에 반기를 들어, 인간의 정신적, 생명적 요소를 중시하여 시를 쓴 작가들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고뇌로 가득한 삶의 문제, 인간의 생명과 우주의 근원적 문제 등을 주제로 삼았으며 시대적 불행을 절규하기도 하였고, 인간적인 문제와 생명의 탐구에 주력하였다. 특히 서정주(徐廷柱)·오장환(吳章煥)·김동리(金東里)·유치환 등의 시로부터 발견되는 생명의식에서 강렬하고 독특한 생리적인 욕구,

도덕적 갈등, 시대의 인식 등이 함께 융합되어 나타난 데서 생명파 또는 인생파라는 호칭이 주어졌다.

* 청록파

1939년 《문장(文章)》 추천으로 시단(詩壇)에 등단한 조지훈(趙芝薰)·박두진(朴斗鎭)·박목월(朴木月) 3인방을 가리키는 말이다. 박목월은 향토적 서정으로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의 의식을 민요풍으로 노래하였고, 조지훈은 고전미에 문화적 동질성을 담아 일제에 저항하는 시를 썼고, 박두진은 자연에 대한 친화와 사랑을 그리스도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읊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말에 등단하여 한글로 작품을 발표하였고, 자연을 소재로 자연 속에 인간의 심성을 담은 시를 썼고, 자연미의 재발견과 국어미의 순화 및 생명의 원천에 대한 추구 노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두운 현실 아래 빼앗긴 고향과 자연을 찾아 노래하였으며 그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 생명의 원천과 역사의 전통을 발견하려 하였다.

2. 1930~1940년대 산문 문학

이 시대는 일제의 수탈 정책이 경제적 침략과 함께 문화적 침략으로 확대되면서 술한 문인들이 지하로 잠적하거나 전향하는 사태를 낳았으며, 일시적 유희기에는 다양한 사조와 형식들이 창조되었다. 해방 전의 문학의 상황은 일제의 탄압으로 암담함이 컸으며, 해방기의 새로운 출발에 앞서 혼란을 겪는 세태를 담아내기도 했다.

* 주요 작품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김유정 '봄봄', '동백꽃' / 김동리 '무녀도', '황토기'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염상섭 '삼대' / 채만식 '태평천하' / 심훈 '상록수' / 이광수 '흙'

◎ 이상 '날개' : 아무 할 일 없는 '나'가 매춘부인 아내와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로 이상은 한국 현대문학 최초의 심리주의 작가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작품 일부
그 날 밤 나는 비를 함빡 맞아 기어코 감기로 앓아 눕고 말았다. 나는 그 후 얼마 동안 아내가 주는 약을 먹고는 잠들곤 했다. 며칠 후 나는 아내의 경대 위에서 최면약을 발견했다. 감기약이라면서 주던 약에 틀림없었다. 나는 몹시 서운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산으로 갔다. 나는 그 약을 먹고는 잠들고 말았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아내의 방을 지나려다 기어코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아내는 내 먹살을 쥐고 나를 덮치고 물어뜯었다. 나는 거리로 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쓰코시(和信百貨店)로 갔다. 나는 거기서 스물여섯 해를 회고했다. 피로와 공포 때문에 오락의 거리를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때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굽어보니 현란한 현실 속에 사람들이 수선을 떨고 있다. 현란을 극한 정도다. 나는 불현듯 거드랑이가 가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한 번만 더 날자꾸나. 나는 이렇게 외쳤다.

작품 줄거리
지식 청년인 '나'는 놀거나 밤낮없이 잠을 자면서 아내에게 사육된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아의식이 강하며 현실 감각이 없다. 오직 한 번 시행착오로 아내를 차치해본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아내'의 남편이었던 적이 없다. 아내가 외출하고 난 뒤에 아내의 방에 가서 화장품 냄새를 맡거나 돈보기로 화장지를 태우면서 아내에 대한 욕구를 대신한다. 아내는 자신의 매음 행위에 거추장스러운 '나'를 '별 안 드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먹인다. 그 약이 감기약 아스피린인 줄 알고 지내던 '나'는 어느 날 그것이 수면제 아달린이라는 것을 알고 산으로 올라가 아내를 연구한다.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를 수면제를 한꺼번에 여섯 개씩이나 먹고 일주야를 자고 깨어난다. 아내에 대한 의혹을 미안해하며 '나'는 아내에게 사죄하러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만 아내의 매음 현장을 목도하고 만다. 도망쳐 나온 '나'는 쏘다니던 끝에 미스꼬시 옥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물여섯 해의 과거를 회상한다. 이 때 정오의 사이렌이 울고 '나'는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 **채만식 '태평천하'** : 소제목이 붙은 15장으로 구성된 장편소설로서 식민지의 어두운 현실을 풍자적 기법으로 비판한 소설이다. '태평천하'가 반어로 쓰였음을 알게 해 준다.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직원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가치관과 생활양태, 그의 가문의 내력, 그에 딸린 가족의 가치관과 생활양태를 시대상과 관련하여 묘사, 풍자한 작품이다.

작품 일부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넌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든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야닌게아니라 모여 선 가관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거나 앓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히여서, 백 년 지녔을 살리랴구 혈걸! 백 년 지녔 살리랴구 혈 테여..... 오냐, 그놈을 삼천 석거리는 직분[分財]하여 줄랴구 히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 석거리를 툭툭 팔아서, 경찰서으다가 사회주의허는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으다가 주어 버릴걸! 으응, 죽일 놈!" 마지막의 으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 소리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작품 줄거리

윤직원은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로서 일제 치하의 사회를 '태평천하'로 생각하며 일제 지배자에게 감사하는 반면, 제 민족과 제 민중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 친일과 착취로 부를 축적한 윤직원은 다시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 '네 가지 사업'을 벌인다. 족보 도금하기, 사회적 직함 얻기, 가문의 양반결혼, 자손들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기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아들과 손자는 방탕으로 재산을 낭비하고, 족보의 도금도 실현되기는 하나 별 의미를 띠지 못한다. 양반과의 결혼은 가정의 불화를 초래할 뿐이고, 군수와 경찰서장의 배출 문제도 난국을 맞게 된다. 게다가 손자 종학이 윤직원의 말대로라면 '부랑당패' 집단인 사회주의에 가담했다가 체포됨으로써 윤직원의 부와 안정은 일시에 붕괴된다.

* 추후 참고문헌 목록 : [네이버 지식백과] 구조에 의한 웃음 : 「태평천하」「미스터 방」 (에로 그로 년센스-근대적 자극의 탄생, 2005. 1. 30., (주)살림출판사)

3. 1950년대 시가 문학

1950년대 전후의 작가들은 6·25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 방법론을 가지고 등장하였다. 특히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성 가치관의 상실, 전쟁의 참혹성에서 비롯된 불안과 허무 의식을 그린 작품이 많았다.

* 주요 작품 : 조지훈 '승무', 박목월 '하관', 박두진 '해'

◎ 조지훈 '승무' :

작품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이 접어 올린 외씨버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박두진 '해' :

작품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 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앓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 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 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따라 취범을 따라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앓 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앓아 앓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4. 1950년대 산문 문학

전쟁을 체험하면서 50년대 작가들의 작품 세계는 방향 상실, 불안과 혼돈, 피해 의식 등에
서부터, 생활의 절박한 어려움이나 일자리 없음의 극한적 고통을 집중 조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구 문예 사조에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존재와 그 의미, 한계에
의 도전과 극복을 언급하며 등장한 실존주의가 전후 한국 문단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 주요 작품 : 이범선 '오발탄' / 장용학 '요한시집' / 황순원 '학' / 하근찬 '수난이대'

◎ 황순원 '학' :

작품 일부
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 열 두어 살쯤 났을 때 일이었다. 어른들 몰래 돌이서 올 가미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이었다. 새끼로 날개까지 얹어

매 놓고는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안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했다. 그러한 어느 날이었다.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울서 누가 학을 쏜다 왔다는 것이다. 무슨 표본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총독부의 허가까지 맡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별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네의 학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잡풀 새를 기어 학 발목의 올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끌었다.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 동안 엹매여 시달린 탓이리라. 둘이서 학을 마주 안아 공중에 후쳤다. 별안간 총 소리가 들렸다. 학이 두서너 번 날개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 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둥그리미를 그리며 저 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땔 줄을 몰랐다.

작품 줄거리

학마을이라는 곳은 학을 신처럼 생각하는 마을이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학이 찾아오는 해면 길운이 오고 오지 않는 해는 액운이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제 말에도 징용으로 끌려갈 때는 학이 찾아오지 않았으나 광복이 되고는 다시 학이 마을을 찾았다.

그러나 학이 한 마리 떨어져 죽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인민군이 들어오자 액운이라고 믿은 마을 사람들은 경계하는 눈초리였다. 인민군은 인민위원장으로 마을 사람 '바우'를 내세웠다. 바우는 학 신화를 부정하며 "반동, 반동"이라고 날뛰고 학을 죽인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나 끝나기 직전에 돌아온다. 얼마 되지 않아, 바우를 기다리던 할아버지 박 훈장은 시체로 발견되고 이장은 사망한다. 덕이와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때 봉네의 손에는 조그마한 애송나무가 들려 있다.

◎ 하근찬 '수난시대' :

작품 일부

"아부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오래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핏 도는 것이었다.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기 무슨 꼴이고, 이기."

"아부지!"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름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미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꺾죄죄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거나 한 듯 험한 얼굴로,